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조국통일 3대헌장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밝히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주체61(1972)년 5월 3일 자정이 훨씬 지난 깊은 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조선측 대표를 만나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주석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 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옳게 세워야 한다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일찍부터 구상하여오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조항별로 하나하나 꼽아가시며 그 본질적내용과 정당성을 사리정연하게 밝히시였다.

이렇게 되여 조국통일3대원칙이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으며 그해 7월 4일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남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였다.

7.4공동성명은 발표되자마자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3대원칙에 대한 합의 및 발표는 우리 민족의 자랑일뿐 아니라 그 민족적긍지를 세계에 그대로 보여준것》, 《7.4공동성명은 새 민족사의 서광》, 《자주통일의 거보》 등으로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결의들을 표시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정부들과 정당, 사회단체들도 북남공동성명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울이신 《숭고한 념원과 불면불휴의 노력의 결실》, 《주체사상의 가장 빛나는 승리》 등으로 격찬하면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1993년 봄 당시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말미암아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혹한 시기에 자주통일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길을 다시금 명시한 통일의 대강이 전세계에 울려퍼졌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1993년 4월 6일 한조항한조항 완성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제시하시였던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총론과 10개 조항으로 되여있다.

총론에는 강령의 기본사상이 천명되여있고 제1조에는 전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가, 제2조에는 민족대단결의 리념적기초, 제3조에는 민족대단결의 원칙, 제4조에서 제10조까지에는 민족대단결의 방도가 명시되여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통일의 큰 열쇠》, 《통일의 지름길》, 《7천만겨레의 오늘의 좌표와 래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민족통일의 대강》으로 격찬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서명운동에 수반급, 국회의원들, 시장들, 각계 인민들 17억 3 000여만명이 참가하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열망은 날로 높아갔다. 조성된 정세는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열망을 반영한 새로운 획기적인 통일방도를 마련할것을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69(1980)년 10월 10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접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민족사의 소망과 조성된 내외적여건을 정확히 구현한 통일대강》, 《민족의 진로를 명시한 빛나는 횃불》, 《뜨거운 통일념원과 애국심의 결정체》로 칭송하였고 세계각국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 인사들도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매우 현실적인 방안》으로 열렬히 환영하면서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이다.

본사기자 박 철 남

민족대단결의 진로를 밝힌 강령적지침

오는 18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신 24돐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4월 18일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라는 서한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의 첫째 체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고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의 정당성은 우선 그것이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이라는데 있다. 그리고 우리의 우수한 민족성을 고수하고 높이 발양시키며 민족수난의 치욕스러운 력사를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 탁월한 사상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서술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와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를 비롯하여 혁명령도의 전기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그이의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경험의 총화이며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의 둘째 체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로작에는 우선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강조되여있다. 민족적단결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단결이며 민족자주의 원칙을 떠나서 민족의 단결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오직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결정적력량으로 될수 있다. 온 겨레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로작에는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이며 사상감정이다. 반세기이상이나 갈라져 살아온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가 있고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의 요구와 리해관계도 서로 다르지만 오늘 우리 민족앞에 1차적으로 나서는 민족적과업은 조국통일이며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야 한다. 로작에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 각계각층 동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 하면서 공동행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킨 력사적로작이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과학적인 해답을 준 불멸의 총서이다.

본사기자 강 류 성

통일을 불러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로 (5)

갈라진 나라의 통일을 누구보다 절절히 갈망해온 한덕수선생은 조국통일사업을 총련의 중요한 애국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관철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1960년대중엽에 이르러 일본반동들과 남조선집권층은 범죄적인 남조선일본《회담》을 본격적으로 다그치는 길에 들어섰다.

한덕수선생은 회의를 열고 남조선일본《회담》을 반대배격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토의하고 각급 조직들과 동포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재일동포들속에서 범죄적인 남조선일본《회담》을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는데 총련이 일본전국에서 조직한 군중집회들에는 수많은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이 나날 미일반동들과 남조선반통일분자들의 민족분렬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의 선두에는 항상 조국통일구호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메가폰을 손에 든 한덕수선생이 서있었다.

일본에 있는 《민단》파의 단합사업을 강화하여야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포들을 통일애국의 대오에 묶어세울수 있다는것을 자각한 그는 《민단》파의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한덕수선생은 《민단》동포들과 일상적인 련계를 가지면서 그들에게 남조선일본《회담》의 매국적 본질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방안을 인내성있게 해설하였으며 총련과 《민단》동포들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설것을 꾸준히 호소하였다.

한덕수선생을 비롯한 총련일군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수많은 《민단》동포들이 남조선일본《회담》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총련동포들과의 공동행동에 나서게 되였으며 미조직동포들, 일본의 광범한 인민들이 여기에 합세함으로써 미일반동들과 남조선의 박정희매국《정권》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72년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일구월심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우리 겨레에게 통일의 서광을 안겨준 의의깊은 사변이였다.

한덕수선생은 동포들속에서 7.4공동성명에 대한 선전전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민단》과 7.4공동성명을 지지하는 공동모임과 공동행동을 벌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민단》동포들속에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지지환영하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나오고 총련과 손잡고 조국통일사업을 해나가려는 기운이 높아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통일세력들의 영구분렬책동을 파탄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적극적인 조국통일5대방침을 천명하시였을 때에도 한덕수선생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전체 일군들과 동포군중을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총련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이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 북남조선《유엔동시가입안》을 제기한것과 관련하여 1973년 8월하순부터 한달동안에 걸쳐 그것을 반대배격하며 북과 남이 단일국호로 유엔에 가입할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전 동포적으로 진행된 이 서명운동에는 《민단》동포들을 포함하여 각계각층 성인동포 약 25만명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재일동포 거의 모두가 망라된 류례가 드문 대중운동이였다.

한편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 조선문제가 상정토의되는 기간 총련의 각급 기관들과 단체들, 각계각층 동포들은 유엔사무총장에게 4 200여통의 전보와 편지, 요청서를 보내여 유엔이 조선의 통일에 도움을 주는 실제적조치를

한덕수선생

취할것을 요구하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후에도 한덕수선생은 총련조직들에서 《유신체제》를 부지하려는 미국과 《유신》파쑈잔당들의 책동을 낱낱이 발가놓으며 합작과 단결로 민족의 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선전공세와 대중운동을 강력히 벌려나가도록 하였으며 전두환도당의 광주대학살만행때에는 역적패당의 동족살륙만행을 폭로규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지도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총련이 앞장에 서도록 하였다.

한덕수선생은 총련이 진보적인 국제회의들과 행사들에도 적극 참가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대외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국제무대에서 총련의 대외활동이 강화됨으로써 총련의 존재가치보다 크게 국제적시야에 들게 되였으며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의 목소리가 세계도처에서 더욱 힘있게 울려나오게 되였다.

본사기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반대배격하여

제2차 세계대전후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와 군사적강점을 영구화하고 우리 민족을 분렬시키기 위해 애국적민주력량에 대한 전면적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을 종국적으로 파탄시키고 남조선에 《단독정권》을 세우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이를 위해 1947년 11월 유엔총회 제2차회의에서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하고 그 허수아비기구를 내세워 남조선에서 단선을 날조하여 리승만괴뢰정권을 조작하려고 하였다.

미국의 침략도구인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 서울에 기여들자 남조선인민전산하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반대배격하는 자기들의 단호한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남조선의 중간층과 일부 우익의 정당, 단체들도 유엔의 비법적결의가 조선민족의 리익과 상치된다는것을 깨닫히면서 그를 반대배격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당시 《한국독립당》 당수였던 김구는 《유엔림시조선위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첫째로, 유엔결의에는 우리의 자주권행사가 명시되여있지 않다. 둘째로, 필연적으로 남북분렬의 우려가 있다. 셋째로, 유엔의 감시는 내정간섭이니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여 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반대배격하는 견결한 립장을 밝혔을뿐 아니라 이 허수아비기구를 내세워 민족분렬을 획책하는 외세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에 일떠섰다.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 서울에 기여들던 1948년 1월 8일 영등포의 경성방직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의 로동자들은 《인민생활이 도탄에 빠지고 외국의 부당한 간섭에 의하여 국운이 위태롭게 된 오늘 우리 로동계급은 용감하게 떨쳐나설 때가 왔다.》고 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이를 신호로 하여 서울과 인천지구 로동자들이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투쟁은 부산, 대구를 비롯한 령남지방과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방에로 급속히 확대되였다.

또한 1월 13일 당시 황해도 연백군 화성면의 2 000여명의 농민들이 《유엔림시조선위원단》절대반대궐기대회를 열고 투쟁에 나선데 이어 17일에는 충청북도 충주, 괴산, 제천, 영동의 농민들, 18일에는 경상북도 영주, 전라북도 장수의 농민들 그리고 기타 여러곳의 농민들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청년학생들도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배격하는 대중적서명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여기에는 서울에서 3만여명,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만도 27만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단선단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특히 1948년 2월 7일 남조선의 로동자들은 《조선의 분할침략계획을 실시하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반대한다!》, 《남조선단독선거를 반대한다!》, 《량군동시철퇴로 조선통일민주주의정부수립을 우리 조선인민에게 맡기라!》,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 등의 구호를 들고 전 지역에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 투쟁은 하루동안에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화순, 려수, 대전, 청주, 삼척 등과 기타 남조선의 중요도시와 산업지구에로 확대되였다.

남조선전역의 도시와 농촌, 공장과 광산, 학교와 거리들에서 100여만명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도시소시민 등 각계층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질겁한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은 허둥지둥 유엔본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당시 《유엔림시조선위원단》 의장은 《유엔소총회》에서 남조선에서 《단독정부》수립을 지지하는것은 오직 리승만과 대지주, 대자본가들의 집단인 《한민당》뿐이며 좌익과 중간파는 물론 다수 우익정객들까지도 단독선거에 의한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고있다는것을 실토하였다.

《유엔림시조선위원단》과 《단독정부》조작음모를 반대하여 벌린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은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높이고 민족분렬을 획책하는 외세에게는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본사기자 김 영 진

《전쟁의 주범은 미국》

— 남조선에서 《한미련합전쟁연습 영구중단촉구 경남자주평화대행진》 진행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가 9일 창원에서 《한미련합전쟁연습 영구중단촉구 경남자주평화대행진》을 진행하였다. 행진에 앞서 집회가 있었다.

집회에서 연설자로 나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대표는 《전쟁이라는 참혹하고 끔찍한 일을 이 땅에서 벌리려고 하는 주범은 바로 미국》이라고 하면서 《분단이후 이 땅에서 벌어졌던 전쟁과 수많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는 모두 미국이 있었다.》고 폭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미국이 지금처럼 북을 겨냥한 전쟁연습을 강행하고 무기를 팔아먹는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윤석열정권이 만들려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하기 짝이 없다.》, 《 선제타격〉이니,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느니 하는 악담이나 하는 윤석열의 주변에는 온통 뼈속까지 친미, 친일분자들과 동족대결분자들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주세상,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된 나라로 힘차게 행진해나가자》고 호소했다.

집회후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경남도당앞까지 행진을 하면서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려는 미국과 동족과의 전쟁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보수패당을 단죄규탄하였다.

본사기자